

GREETINGS

눈부신 여름 햇살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입니다.
금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은 깊이 있는 독일 정통 연주를 들려줄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바이올린의 여왕 **올리아 피셔**의 연주로 채워집니다.

1870년 창설되어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며
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금일 공연은 특히 8년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에서 이상적인 독일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상임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의 마지막 고별 무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를 더하기 위해 잔데를링은 그의 대표 레퍼토리인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이번 투어의 레퍼토리로 선정하였고,
그의 절친한 연주자인 21세기 여성 바이올린 트로이카로 꼽히는 올리아 피셔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며 아름답게 투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오며 한 번쯤은 멈춰 서 내가 걸은 길을 뒤돌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될 마지막 한국 공연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 가슴 한 쪽에 분명 뜻깊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 미하엘 잔데를링, <조선일보> 인터뷰 중

7월 한국 투어 공연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미하엘 잔데를링.
그와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마지막 시즌 투어를 감상하시며,
중후하고 깊이 있는 독일 사운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SELC Concert Hall [Samsung Electronics Leadership Center]

| 개관 2014년 11월 1일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59

| 객석 1,200석 (2층 678석, 3층 299석, 코러스석 223석)

| 부속시설 리허설룸, 개인 및 단체 연습실, 지휘자, 주연 및 단체 분장실 등

